



남원 자봉센터 등, '2025 볼런투어' 진행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관내 산우 가족사랑 봉사단 및 한팔재능나눔 가족봉사단과 '2025 볼런투어'가 진행했다.

볼런투어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지역탐방(tour)의 합성어로 이번 볼런투어는 '가족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품다'라는 주제로 진행, 1부에는 김주완 남원문화원 원장의 '혼불과 최명희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2부 프로그램은 혼불체험관 이해연 대표의 '채미있는 도자 이야기' 강의를 들었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은 체험으로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성된 도자기는 보절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읍면동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남원시는 12일 운봉읍에서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읍면동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올 1월 노암동부터 오는 12월까지 23개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아동 안전망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 권리 이해 △아동학대 유형(신체, 정서, 성, 방임 등)의 특징과 징후 △학대 상황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긍정 양육 방법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가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해 참가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남원시의 선제적인 노력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응지면, 행정복지센터서 이장회의 개최

김제시 응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응지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이장단, 기관·단체장,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념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의 미지급자 신청촉려 및 주민세 납부 기간·방법에 대해 홍보를 요청했으며 이장 산업 시찰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동시에 시할 일정과 방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적극 추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취약계층 지원... 건강증진·의료 접근성 향상 '앞장'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노인보건의료센터,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소아청소년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분비내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노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강현구 신경과 교수)는 독거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 위험인자 검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약 2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위험인자 검진과 진료를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경동맥초음파(CUS) 검사와 추가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백진아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전북도 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질환 예방 교육 및 구강검진과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20곳, 약 40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동일 규모로 사업을 이어가며, 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와 공공보건의료 참관



실습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병원(어린이병원장 조대선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조기발견과 관리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41명을 대상으로 정밀검진과 합병증 검사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캠프와 당뇨병 정밀검진·합병증검사·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병원이 펼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더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더 세심하고 따뜻한 의료를 이어가며, 언제나 믿고 찾아오실 수 있는 든든한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도 해외의료봉사단, 몽골서 의료 봉사 실천 '앞장'

1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몽골 현지로 떠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나눈과 봉사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에 나섰다.

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센터 내 교육장에서 의료봉사단원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성공적인 의료봉사를 다짐한 뒤 몽골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오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현지로 떠난 의료봉사단원은 단장인 박용현 전주시 의사회장과 부단장인 조환희 전주시 치과의사회장을 중심으로 우문고비 주 달란자드가드 시 지역종합병원과 마남고비병원에서 현지 주민과 진료, 처방, 조제,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내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치과, 한의과 등 10개 진료과목과 틀니, 구강 보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의료봉사단원은 의약단체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



회, 약사회와 의료기사연합회의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회, 방사선사회, 간호조무사회 등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몽골 의료봉사 활동에 앞서 필요한 의약품 준비와 전문 활동을 위해 몽골현지와의 영상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를 마쳤다.

박용현 단장은 "무엇보다 단장으로서 안전한 의료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 농업인 AI 정보화 교육 실시

진안군은 정보화농업 연구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정보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된 이번 교육은 AI 최신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다양한 AI 기술을 소개하며 농업인들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교육생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강사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교육이 끝난 후에도 자율학습 시간을 갖는 등 뜨거운 열의를 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경찰서, 장계사거리서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12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장수 장계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 및 지역경찰,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전단지 및 휴대용 물티슈를 나눠주며 전개했다.

경찰청에서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7~8월 집중 홍보를 통한 계도 중심의 캠페인을 실시한 후, 실제 법치금을 부과와 벌점 등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는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5대 반칙운전은 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 적색신호에서 꼬리물기, 새치기 불법유턴, 고속도로전용차로 위반, 허위구급차량 운전이다.

황재현 서장은 "운전 중 작은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한국여성농업인소방안전·역량 강화 교육

진안군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원 90명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요령 △가을철 농기계 사고 예방 안전수칙 △기초 소방시설 사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러진 과제교육에서는 전통공예 기법인 나전칠기를 활용한 풍경종 만들기 실습이 마련돼, 회원들이 창의력과 손재주를 발휘하며 전통문화의 가치를 체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